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51 호

2021년 6월 15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타깃 젠더 이퀄리티 (TGE)> ROUND2 참여 기업 모집 (6/30 마감)
2. 2021년 인권경영포럼 안내 (6/16)
3. 먼슬리 인사이트 6월호(환경) 주요 내용 소개

■ 본부 소식

1. 2021 리더스 서밋 참여 안내 (6/15~16)
2. UNGC, 변혁적 거버넌스를 위한 'SDG16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런칭
3. 유엔 사무총장, UNGC 이사회 신규 이사 임명
4. 비즈니스 리더들, 더 나은 발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 참여
5. 포르투갈 총리 및 미국 기후특별특사, '세계 해양의 날' 맞아 해양 기후대응 가속화 촉구
6. UNGC, 기업의 생활 임금 보장을 요구하다
7. 파리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 주요 G7 주가지수 부재

■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한국임업진흥원
2. [SDGs 솔루션] 팜유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안

■ UNGC 회원 뉴스

1. 신한은행,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펴내…”국내은행 최초”
2. 코스맥스, ESG 경영 박차…UNGC 가입
3. ESG 핵심 수소사업 확대 속도내는 SK(주)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타깃 젠더 이퀄리티(TGE)> ROUND2 참여 기업 모집 (6/30 마감)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타깃젠더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이하 TGE) 프로그램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양성평등을 위해 더욱 야심찬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성의 비즈니스 리더십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녀 간 경제 격차를 줄이려면 257년이 걸릴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올 정도로 진전의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성 평등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유엔글로벌콤팩트가 UNGC 회원사를 TGE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TGE는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여성 임원 비율 향상과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달성함으로써 기업이 성 평등 지지 약속을 실천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평등 가속화를 위한 TGE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합니다:

-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과 리더십을 증진하기 위한 야심차고 현실적인 기업 목표 설정
- 성평등 학습 기회 참여와 맞춤형 실행 계획 수립
-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성 격차 분석 툴 사용을 통한 자사의 성 평등 현황 파악
- UN 파트너, 전문가, 동종업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성 평등 전략 수립
- 자사 여성 임원 및 성 평등 사례 소개

글로벌콤팩트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TGE는 성평등에 관한 글로벌적 시각과 지역 정보, 파트너 및 실행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더 알아보기](#)

2. 2021년 인권경영포럼 안내 (6/16)

2021년 상반기

인권경영포럼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10년의 성과와 과제]

-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14:00~17:00
- 장소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비대면 진행)
-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 주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시간	내용
14:00~14:10 (10분)	<p>환영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권춘택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p>좌 장: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단장)</p>	
14:10~14:30 (20분)	<p>기조발제 및 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철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가단장 - 인권 환경 변화와 기업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제언
14:30~15:40 (7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인권경영보고서와 경영평가를 통한 기업 실사의 제도화 2 송세련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과 인권경영 3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실장 - 글로벌 기업과 인권 동향 및 한국 기업의 인권경영 4 최성은 유엔개발계획(UNDP) 기업과 인권 아시아 프로젝트 전문관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10주년과 과제
15:40~15:50 (10분)	휴식
15:50~16:50 (60분)	<p>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김창완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간사 - 공공기관 ESG 확산과 선례(Best Practice)를 중심으로 2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한국준법진흥원 원장 - 기업의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중심으로 3 정현찬 (사)휴먼아시아 기업과 인권 정책연구팀장, 글로벌 ESG 학회 간사 - 4차 산업혁명 기술(New-Tech) 인권영향평가를 중심으로 4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변호사 - 실사의무화 입법을 중심으로
16:50~17:00 (10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신청방법: 온라인 링크를 통해 비대면 참석 등록, 사전 신청자에 한해 포럼 생중계 시청

신청링크: <https://forms.gle/wQdBw9u8M1zKnHL6A>

문의: 2021년 상반기 인권경영포럼 사무국 (02-749-2149/gckorea@globalcompact.kr)

*수어 동시통역 제공

더 알아보기

3. 먼슬리 인사이트 6 월호(환경) 주요 내용 소개

[Monthly Insights 6 월호] 넷제로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여정!

2021 년 6 월호의 주제는 환경입니다. 이번 Monthly 에는 2021 P4G 정상회의 부대행사, 기후와 자연을 위한 기업의 행동을 위한 청사진에 대한 인사이트, 사라 골든(Sarah Golden) GreenBiz Group 수석 에너지 분석관 겸 VERGE 사 에너지 위원의 인사이트, 2021 리더스 서밋 참여 안내, 유엔 지도자들의 해운공급망 의존 기업들을 향한 선원 권리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 촉구 소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뉴스로 보는 CSR 트렌드(ESG)에 대한 최신 동향, Gender Equality Korea 와 Business Integrity Society 의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주요 콘텐츠>

1. 2021 P4G 정상회담 부대행사 <Sustainable Businesses Towards 1.5°C and Net-Zero Future>



이번 호는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한국협회, WWF,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이 공동 운영하는 CoREi (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가 2021 P4G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운영한 <Sustainable Businesses Towards 1.5°C and Net-Zero Future> 부대행사의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UNGC 하이디 후스코 (Heidi Huusko) 기후 환경 정책 총괄의 발표를 소개하였으며, 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 패널토론 및 Q&A 설명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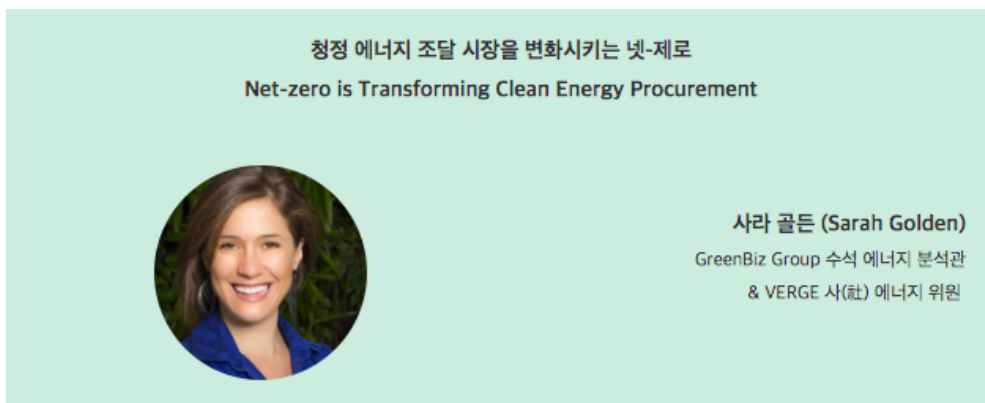
2. 전문가 인사이트



본 보고서는 수 많은 기업 기후 행동 전략들 중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후 변화 완화 및 자연 보호 전략으로써 '기업 기후 완화 청사진(Corporate Climate Mitigation Blueprint)' 을 소개합니다.

본 청사진은 기업의 기후 노력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디자인하였으며, 또한 1) 탄소세 및 산업 부문별 인센티브, 2) 지속가능한 기후 발전을 위한 동종 업계 협업 3)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한 기업 및 생태계 회복력 개선 등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세 가지 추가적인 주요 요소를 강조합니다.

전문가 인사이트는 <기후와 자연을 위한 기업의 행동을 위한 청사진>을 발췌 및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는 수많은 기업 기후 행동 전략들 중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후 변화 완화 및 자연 보호 전략, '기업 기후 완화 청사진(Corporate Climate Mitigation Blueprint)' 을 소개했습니다. 본 청사진은 기업의 기후 노력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디자인되었으며, 1) 탄소세 및 산업 부문별 인센티브, 2) 지속가능한 기후 발전을 위한 동종 업계 협업 3)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한 기업 및 생태계 회복력 개선 등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세 가지 추가적인 주요 요소를 강조하였습니다.



사라 골든 (Sarah Golden) 수석 에너지 분석관 겸 에너지 위원은 기고문을 통해 탄소 감축 최적화를 위한 재생 에너지 사업의 영향에 대한 에너지 구매자들의 인식 역시 성숙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온실가스 배출 완화 이점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력 부문에서 탈탄소화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기업과 지역 사회 및 국가는 탄소 상쇄와 감축 전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본부 소식



2021 리더스 서밋 참여 안내 (6/15~16)

전 세계 수천 명의 비즈니스 리더, 정책 입안자, 시민 사회 및 학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지속가능성 향상을 논의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최대 연례 행사가 개최됩니다!

[등록 바로가기](#)



유엔 지도자들, 해운공급망 의존 기업들에 선원 권리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 촉구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인권사무소(UN Human Rights Office),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포괄적인 인권 체크리스트를 2021년 5월 6일 해양 산업 관련 기업들에 전달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본부 소식에서는 2021 리더스 서밋 참여 안내, 유엔 지도자들, 해운공급망 의존 기업들에 선원 권리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 촉구 소식을 전합니다.

4. 뉴스로 보는 CSR 트렌드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한·미·일 주요기업 ESG 등급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 성적이 미국·일본에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상위 등급(AAA)을 받은 국내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상위 등급(AA 이상)을 받은 기업은 3곳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 미국 등의 ESG 경영 선도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점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국내 기업들의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 [ESG 의치는 한국 기업, 정작 최상위 등급은 '0곳'](#)

대한상공회의소의 'ESG 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ESG 활동이 소비자의 제품 구매 선택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의 63%가 '기업의 ESG 활동이 제품 구매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70.3%는 'ESG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친환경·사회공헌·근로자 우대 등 ESG 우수기업 제품의 경우 경쟁사 동일 제품 대비 추가 가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서 각각 플라스틱 과다 사용에 따른 생태계 오염, 일자리 부족, 부적절한 경영권 승계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ESG 부정적 기업 제품 안산적 있다" 70%](#)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0년 6월 기준)' 결과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와 비교해 거의 비슷한 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약 70% 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정액급여 수준은 전체 73.4%, 정규직 74.6%, 비정규직 74.3%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체 남성 대비 정규직 여성의 총 실근로시간은 98.1%, 비정규직 여성은 89.7%이었습니다. 고용부 정향숙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 보건·복지, 음식·숙박 등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에서 더 많이 활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男 시간당 임금 대비...女 정규직 임금은 약 70% 수준](#)

글로벌 거대 석유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저감 요구에 둔감하게 대응하다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6일 시행된 엑손모빌 주주총회 예비투표에서 0.02%(약 50만달러) 지분 투자자인 '엔진넘버원'에 경영진이 좌지우지되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같은 날 네덜란드 법원은 석유업체 로열더치셸이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다면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줄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석유업계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석유 공룡'들의 굴욕...탄소저감 요구에 엑손모빌·셸 등 무릎](#)

매월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로 보는 CSR 트렌드> 코너에서는 한국 기업의 ESG 등급 성적이 미국과 일본에 크게 뒤처진다는 소식, 대한상공회의소의 'ESG 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0년 6월 기준)' 결과, 글로벌 거대 석유 기업들의 탄소저감 대응 위기에 대한 소식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5. GEK/BIS 콘텐츠



[국내 동향] 가족돌봄휴가 최신동향



[글로벌 동향] COVID-19과 성평등



[반부패 동향] 반부패 정책 사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노바티스)



[반부패 동향] 2020년 세계부패바로미터
아시아 편 (국제투명성기구, 2020)

마지막으로 UNGC 한국협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Gender Equality Korea(GEK)와 Business Integrity Society(BIS)의 콘텐츠가 소개되었습니다. GEK 는 가족돌봄휴가 최신동향을 다루었으며, 글로벌 동향에서는 COVID-19 과 성평등 소식을 소개했습니다. BIS 에서는 반부패 정책 사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노바티스)와 2020 년 세계부패바로미터 아시아 편 (국제투명성기구, 2020)을 공유하였습니다.

Monthly Insights 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본부 소식

1. 2021 리더스 서밋 참여 안내 (6/15~16)



2021 리더스 서밋, 세계 각지에서 모인 비즈니스 리더, 정부 관계자, 시민 사회 지도자, 학계가 참가하는 금년 최대규모 행사

- **일시:** 2021년 6월 15-16일 / 온라인 개최 (26시간)
- **주요 일정:** 기조연설 / 환영 리셉션 / 실시간 질의응답 / 분과 세션 / 네트워킹 / 온라인 전시관 / 온디맨드(On Demand) 영상 세션 등

[일정표 바로가기]

- 주요 연사: 김부겸 대한민국 총리,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앤드류 호니스 자메이카 총리, 알록 샤르마 COP 26 의장, 산다 오잠보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줄리 스윗 액센추어 CEO 등



김부겸
대한민국 총리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산다 오잠보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줄리 스윗
액센추어 CEO

자세히 보기

UNGC 리더스 서밋(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은 전 세계 수천 명의 비즈니스 리더, 정책 입안자, 시민 사회 및 학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논의하는 UNGC 의 가장 큰 연례 행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리더스 서밋은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 19 팬데믹, 사회경제적 불평등 악화, 부패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입니다.

UNGC 는 본 행사를 통해 함께 지식을 나누고, 진전 상황과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보며,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을 독려할 것입니다. 전략적 공동노력에 대한 포부를 높이고, 공정성과 탄력성을 갖춘 세상을 재건하려는 수천 명의 글로벌 리더와 SDG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제 (Themes)

이번 서밋에서는 다섯가지 주요 이슈와 더불어 타깃젠더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노동자 권익, 양질의 일자리, 기후변화 대응, 반부패,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공동노력을 촉구합니다.



주요 행사

이번 리더스 서밋에는 디지털 이벤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수천 명의 리더들과 함께 26 시간 동안 진행되는 회의와 지역별 분과 세션, 공연, 전시회 및 상호간 네트워킹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26시간 동안의 콘텐츠

글로벌 리더들은 총회와 분과세션에서 자신의 인사이트와 SDG 구현 사례 및 공동노력이 주도하는 변화의 방식에 대해 공유할 것입니다. 오늘을 이끄는 유엔과 정부, 기업 및 학계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파빌리온

리더스 서밋 파빌리온(Leaders Summit Pavilion)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파트너들이 SDGs 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 관련 영상 공유 및 세션을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네트워킹

미래를 이끄는 수천 명의 지속가능성 리더들과 원격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우리는 협력과 대담한 행동을 통해 엄청난 변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UNGC Leaders Summit 2021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참가 등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UNGC 한국협회 사무처(☎02-749-2149/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2. UNGC, 변혁적 거버넌스를 위한 'SDG16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런칭



유엔글로벌콤팩트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중 거버넌스 요소(G)에 대한 비즈니스 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런칭하였습니다.

"SDG16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변혁적 거버넌스(Inspiring Transformational Governance)"는 기업 문화, 윤리 및 성과를 강화하고 기업이 공공기관과 법률 및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프레임워크는 2021년 6월 16일 개최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 "변혁적 거버넌스로의 여정 (SDG 16 Business Framework: Inspiring Transformational Governance)" 세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SDG 16번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로 변화를 촉진하고, 모두에게 효과적이며, 책임감있고, 포용적인 기관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의(Justice)에 접근할 수 있도록 12개의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SDG 16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는 기업의 변혁적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합니다. 보다 책임감 있고, 윤리적이며, 포괄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하며,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를 통해 ESG 성과를 높이고, 공공기관과 법률 및 시스템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SG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기업의 적용이 시급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변혁적 거버넌스는 기업이 ESG 중에서 "G"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기업이 공급망 전체를 포함한 내·외부 활동을 통하여 SDG 16의 각 목표를 구현해야 하는 이유와 평가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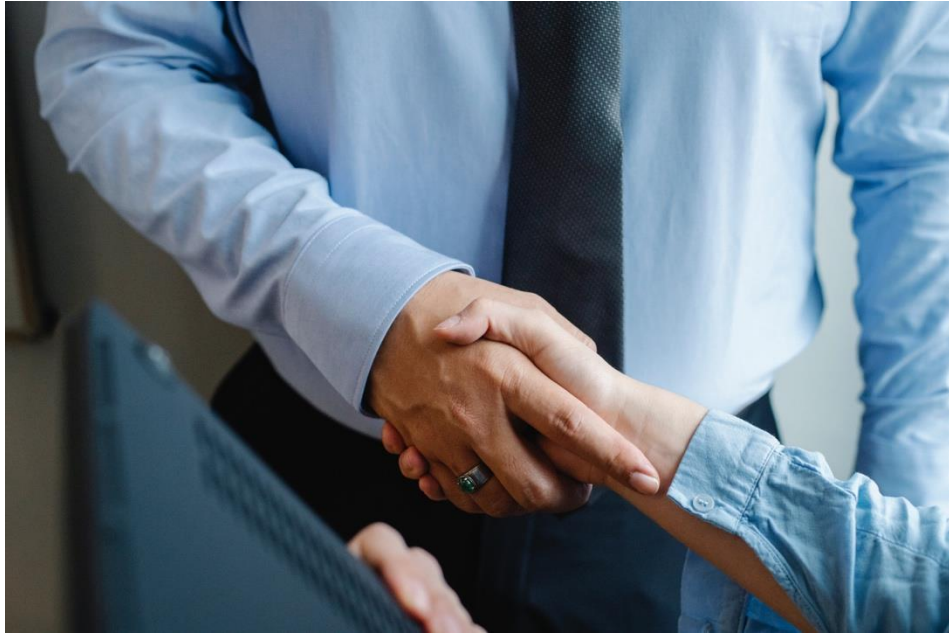
UNGC 산다 오잠보 사무총장은 "COVID-19 팬데믹과 기후변화, 경제적 불안, 사회 불평등, 허위 정보 등의 위기는 기업이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업은 윤리적 리더십을 촉진하고, 공공 및 민간 기관과 시민 사회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 본 프레임워크는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는 데서 나아가, 평화와 정의, 강력한 제도 및 원칙을 지지하는 여정으로 가는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DG 16 비즈니스 프레임워크의 목표는 새로운 법이나 표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진전시키는데 있어, 비즈니스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를 돕고, 상호 기능적인 참여를 강화하며, 기업의 현위치를 평가하고, 개선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이사회와 관리, 가치, 문화, 전략, 정책, 운영을 포함한 경영 전략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DG 16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 14 개국 60 여명의 경제계 인사들의 통찰력에 기초하며, 세계 100 여 개국의 1300 여 명의 최고경영자(CEO)가 서명하여, UN 75 주년에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된 [글로벌 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리더들의 성명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는 다국적 공동 정책과 SDG16 목표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2023 전략의 일환으로, 변혁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기반을 형성할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3. 유엔 사무총장, UNGC 이사회 신규 이사 임명



2021년 6월 2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의 신규 이사를 임명했습니다.

스테판 코튼(Stephen Cotton) 국제운송노동자연맹 사무총장과 마르코 람베르티니(Marco Lambertini) WWF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이 3년 임기로 임명되었으며,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 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UNGC 10대 원칙 중 4개 가이드선 기관(국제 노동기구,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유엔 환경 프로그램)이 공유하는 신규 이사회의 임원으로써 2년 임기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덴마크가 UNGC 정부 그룹의 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덴마크 외교부 녹색 외교 및 기후 부서장 라스무스 아빌드가르 크리스텐센(Rasmus Abildgaard Kristensen)도 이사회에 참여합니다.

지난달 이사회에서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UN 사무부총장과 폴 폴먼(Paul Polman) 이사회 부의장은 임기가 끝난 이사들의 재임 기간 중 공로를 치하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임기 종료 이사

- 이사회 부의장 볼라 아델솔라(Bola Adelsola), Standard Chartered Bank 아프리카 수석 부회장
- 프란체스코 스타레이스(Francesco Starace), Enel SpA and Philip Jennings CEO 겸 총 책임자

산다 오잠보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새로운 이사회는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넘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이루어 내기 위해 UNGC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앞으로 이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10대 원칙을 유지하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책임있는 기업과 생태계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전파함으로써,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을 가속화하고 확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UNGC는 유엔 사무총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특별 이니셔티브로서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 분야에서 10대 원칙에 따라 운영 및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전 세계 기업들에게 촉구합니다.

스테판 코튼(Stephen Cotton) 국제운송노동자연맹 사무총장은 신규 이사 임명에 대해 "코로나 19 위기 내내, 노동기구와 고용주, 유엔글로벌콤팩트 간의 협업, 특히 선원 교체 위기를 둘러싼 협력이 노동자와 기업들에게 해법을 제공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며 "이사회에서 근로자와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UNGC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람베르티니(Marco Lambertini) WWF 사무총장은 "쇠락해 가는 지구에서는 결코 빈곤을 퇴치하거나, 번영하고 평등하며 탄력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도전에는 지구와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있다."며 "특히 기업은 전략, 행동 및 운영 방안을 조정하여, 사회 및 환경 개발을 발전시킴으로써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 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은 "UNGC 이사회에서 상임직을 맡은 가이던스 기관의 첫 번째 책임자로서, 기업이 보다 지속가능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야심찬 의제와 전략에 전념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또한 더 광범위한 UN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기업 참여의 토대인 10대 원칙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자 한다. 20년 전 처음 소개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10대 원칙은 현재도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연임하는 이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클라라 아르파 아조프라(Clara Arpa Azofra), ARPA 모바일 캠페인 팀 CEO
- 페트릭 찰후브(Patrick Chalhoub), Chalhoub 그룹 CEO
- 렌 홍빈(Ren Hongbin) 중국국유재산감독관리위원회 부회장(SASAC)
- 아난드 마힌드라(Anand Mahindra), Mahindra Group 회장
- 플로라 무타히(Flora Mutahi), Melvin Marsh International 설립자 겸 CEO
- 장 파스칼 트리쿠아(Jean-Pascal Tricoire), Schneider Electric 회장 겸 CEO
- 산드라 우 웬-시우(Sandra Wu Wen-Hsiu), 주식회사 Kokusai Kogyo Co. 회장 겸 CEO

UNGC 이사회는 유엔 내에서 책임있는 비즈니스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전략과 정책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복수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이사회는 UNGC에 대한 지속적인 전략 및 정책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UNGC의 사명을 발전시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 대변인들로서 무보수의 명예직이며, 개인 자격으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이사회는 www.unglobalcompact.org/about/governance/board/members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4. 비즈니스 리더들, 더 나은 발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 참여



기업, 정부, 유엔, 시민사회 등 2만명 이상의 리더들이 최대 규모의 유엔 기업 지속가능성 행사에 모여, 코로나 이후 정상 궤도 재진입을 위한 전략적 공동노력을 증진하고, 정의롭고 공정하며 회복력 있는 사회를 재건하는데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 일시: 2021년 6월 15일 21시 - 16일 23시 / 온라인 개최 (26시간)
- 주요 일정: 기초연설 / 환영 리셉션 / 실시간 질의응답 / 분과 세션 / 네트워킹 / 온라인 전시관 / 온디맨드(On Demand) 영상 세션 등
- 참여 비용: UNGC 회원사 - 무료 / UNGC 비회원사 - 1인 \$ 200

6월 15일과 16일 이틀 간 개최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은 글로벌 기후변화와 코로나 19, 악화일로인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부패 해결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회복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각국 정상들과 주요 기업들의 CEO, 그리고 UN 리더들을 소집합니다.

금번 리더스 서밋에는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 싱가포르 대통령, 자메이카 H.E. Andrew Holness 총리, 대한민국 김부겸 국무총리, 안토니오 구테헤스 (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아미나 J. 모하메드 (Amina J. Mohammed) 유엔 사무차장, 알록 샤르마 (Alok Sharma) COP26 의장, 나이젤 토픽 (Nigel Topping) COP26 기후변화 대변인, 잉거 앤더슨 (Inger Andersen) UNEP 전무, 미셸 바살레 (Michelle Bachelet)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샤란 버로우 (Sharan Burrow)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산다 오잠보 (Sanda Ojiambo) 사무총장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줄리 스위트(Julie Sweet) 액센추어 CEO, 로베르토 마르퀘스(Roberto Marques) Natura & Co CEO, 수피차이 치라바논트(Suphachai Chearavanont), Charoen Pokphand Group CEO, 장 파스칼

트리쿠아 (Jean-Pascale Tricoire) Schneider Electric CEO, 프란체스코 스타레이스(Francesco Starace Enel CEO, 키이스 앤더슨(Keith Anderson) Scottish Power CEO 를 포함한 24 명 이상의 CEO 들의 스피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9 개 유엔글로벌콤팩트 로컬 네트워크의 연사들은 26 시간 동안 지속되는 버추얼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상태, 신뢰할 수 있는 기후행동, 공동노력을 통한 부패해결, 양질의 노동과 생활임금 보장, 여성리더십의 가속화와 시장 내 혁신적 지속가능 투자 수단 도입 등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 밖의 고위층 연사로는 래리 휘트모어 (Larry Whitmore) 코미디언 겸 프로듀서, 크리산 발렌드라 (Krishan Balendra) 존 킬스 홀딩스 PLC 회장, 매니쉬 밥타 (Manish Bapta) 세계 자원 연구소 CEO 겸 임시회장, 칸 카카 (Can Caka) Anadolu Efes CEO, 리 쟈구오 (Li Zhenguo) LONGi Green Energy Technology Co 설립자 겸 회장, 마조리 양 (Marjorie Yang) Esquel Group 회장 겸 CEO, 빅토리아 야모쉬추쿠 (Victoria Yarmoshchuku) Ford 재단 CEO 와 대런 워커 (Darren Walker) 이사장이 자리를 빛낼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기](#)

5. 포르투갈 총리 및 미국 기후특별특사, '세계 해양의 날' 맞아 해양 기후대응 가속화 촉구



2021년 6월 7일, 유엔글로벌콤팩트와 UNFCCC 고위급 기후 챔피언 (High-Level Climate Champions)은 COP26 준비 기간 중 해양 기후에 관한 앰비션 고취를 위한 비대면 세션을 개최했습니다.

- 주제: 해양-기후 앰비션 루프(Ambition Loop) 촉진
- 일시: 2021년 6월 7일 9시~10시(ET)

세계 해양의 날을 앞두고, 안토니오 코스타(António Costa) 포르투갈 총리와 존 케리(John Kerry) 미 대통령 기후특별사는 기업 및 정부 지도자들과 함께 야심찬 민간 부문 리더십과 과감한 정부 정책이 어떻게 해양 기반의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앰비션을 형성할지 논의했습니다.

“해양-기후 앰비션 루프(Ambition Loop)의 촉진” 세션에서 글로벌 리더들은 국가별 기여도(NDCs)에 있어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해양 기반 해결책 개발을 위해 확실성과 민간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해양 관리 계획 강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UNFCCC 해양 제로 타겟을 위한 기후 챔피언 레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는 해양 이해당사자들의 글로벌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해양생태계 손실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맹그로브, 감조 습지, 조석, 산호초, 해초 등 해양 생태계가 제공하는 자연 기반 솔루션은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Sustainable Ocean Economy) 고위급 패널에 따르면, 해양은 지구 산소의 최소 50%를 생산하고, 지구 생물 대부분의 서식지이며,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기후 규제에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양 기반 완화 옵션은 2050년까지 1.5°C 목표를 향해 최대 21%까지 배출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세션의 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토니오 코스타 (António Costa) 포르투갈 총리, 존 케리 (John Kerry) 미국 기후 대통령 특사, 오드 에밀 잉게브리츨슨 (Odd Emil Ingebrigtsen) 노르웨이 해양수산부 장관, 파울루 베이가 (Paulo Veiga) 해수부 장관, 산다 오잠보 (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토마스 툰 안데르센 (Thomas Thune Andersen) Orsted and Lloyd's Register 회장, 알 제리아 압둘 (Al Jeria Abdul) Seadling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그넨스 베긴 빌레코크 (Ignace Beguin Billecocq) UNFCCC High Level Climate Champions 연안 및 해안 구역 리드 등입니다. 소개는 에릭 지렉스키 (Erik Giercksky)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 부문 책임자가 담당하며,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해양 특별 고문인 스톨라 헬리켄 (Sturla Henriksen) 이 의장을 맡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6. UNGC, 생활 임금 보장을 요구하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유엔글로벌콤팩트, 모든 근로자, 가족, 지역사회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생활 임금 보장을 요구하다

2021년 6월 9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새로운 디지털 보고서 "공급망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임금 개선(Improving Wages to Advance Decent Work in Supply Chains)"을 발표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필수적인 측면으로 고려하고, 생활 임금을 보장하며, 근로자, 가족 및 지역사회가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책임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있어 공급망 내 최저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개선은 절실한 과제라는 점이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지만, 이제 의지와 행동 모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 빈곤 해소를 위한 기업의 책임이 더욱 명확해짐에 따라, 다양한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복잡한 임금 문제를 헤쳐나가며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제시합니다. 또한 사례를 통해 다른 기업들이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산다 오잠보 사무총장은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COVID-19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취약성을 극명히 드러내며 생활 임금 보장을 더욱 긴급하게 만들었다. 보고서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누구도 뒤쳐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20 개 이상의 기업들로 이루어진 UNGC 글로벌 공급망 액션플랫폼, 'UN Global Compact Decent Work'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로레알, 슈나이더 일렉트릭 및 유니레버와 같은 회사의 CEO 들은 2021 년 6 월 15 일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에서 국제무역연합(ITUC)의 샤란 버로우(Sharan Burrow) 총무장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고위급 세션에 참여합니다. “생활임금 보장: 전 세계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약속(Ensuring Living Wages: A Commitment to Advance Decent Work Globally)” 세션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고, 공급망 내 임금 개선을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기](#)

7. 파리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 주요 G7 주가지수 부재



SBTi(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를 대표하여 UNGC 와 CDP 가 실시한 새로운 연구는 최대 규모의 G7 기업들이 야심찬 기후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야심찬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G7의 주요 주가지수 포함 기업들은 현재 1.5°C 또는 2°C 경로 1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SBTi는 가장 큰 상장사가 포함된 G7 기업들에게 기후 조치를 시급히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진행된 분석에 따르면, G7 국가들의 주요 지수는 현재 기업 기후 앰비션에 기반하여 평균 기온 2.95°C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대 거래소에 상장된 주요 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된 주가지수는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UNGC와 CDP가 SBTi를 대표하여 발간한 본 보고서에 따르면, 7개의 지수 중 4개가 3°C 이상의 위험한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캐나다 SPTSX 603.1의 70%를 차지하고, 이탈리아 FTSE MIB 2.7°C 등급의 약 50%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는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릴라 카르바시(Lila Karbassi) 유엔글로벌콤팩트 프로그램 책임자 및 SBTi 이사회 의장은 "G7 국가 기업들은 더 넓은 세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의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잠재력이 있다. 보고서는 시장과 투자자들이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G7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정부는 야심찬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설정을 장려하기 위해 더욱 나아가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1.5°C 에 대한 투자 조정

최근 기후와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G7 장관들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자국의 포트폴리오를 파리 협정 목표와 일치시키고 늦어도 2050년까지는 과학 기반의 넷-제로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동적 투자는 현재 미국의 40%, 유럽계 펀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동적 투자자들은 이들 7개 주요 지수에서 19% 만이 파리협정에 맞춘 기후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1.5°C 목표에 따라 2035년까지 배출량을 78% 감축할 계획입니다. SBTi는 FTSE 100개 기업 중 35개 기업이 이미 1.5°C에 맞춰 감축목표를 조정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FTSE 기업들 사이에서 과학 기반 기후 목표의 채택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배출국들 중 일부는 여전히 야심찬 기후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전체 지수 온도 등급은 3.1°C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림 1 참조).

Index	CAC 40	DAX 30	NIKKEI 225	FTSE 100	S&P 500	FTSE MIB	SPTSX 60
Country	France	Germany	Japan	UK	USA	Italy	Canada
Temperature alignment	2.7°C	2.2°C	3.0°C	3.1°C	3.0°C	2.7°C	3.1°C
% Index emissions covered by SBTs	41%	71%	12%	7%	16%	41%	<1%
% Index companies in SBTi	78%	50%	28%	48%	24%	23%	10%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G7 국가들의 기후 행동에 대한 모멘텀은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CDP에 공개된 모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운데, 64%는 G7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에 의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2020년은 기후 약속에 있어 획기적인 한 해였으며, 과학 기반 목표의 연간 채택률은 2015-2019년에 비교하여 2020년에 두 배가 되었습니다.

알베르토 카릴로 피네다 (Alberto Carrillo Pineda) CDP 과학기반 목표담당 국장이자 SBTi 운영위원회 위원은 "기후과학은 위험을 알면서도 흡연을 계속하는 것과 같다"며, "기후와 환경 파괴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건강, 경제 및 사회적 과제이며, 세계 최대 기업들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오늘의 연구 결과는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과학 기반 기후 목표를 설정하고 넷-제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말했습니다.

긴급 기후 조치

본 보고서는 또한 금융기관, 기업 행위자, 투자자 및 정부를 위한 네 가지 긴급 기후 조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첫째로, 기업과 정부는 "앰비션 루프 (ambition loop)"를 활용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앰비션 루프란, 주요 연방 공급업체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입한 미국 정부의 최근 기후 관련 재정 위험에 대한 행정명령과 같이 민간 부문 조치와 정부 정책이 서로 강화되는 긍정적인 피드백 사이클입니다.

둘째로, 기업들은 공급망과 협력함으로써 공급망을 탈탄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로, 투자자들은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과 기후 금융 표준에 과학 기반 목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기관은 포트폴리오 수준의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하고, 기초 자산과의 계약을 통해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도미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는 CDP Science-Based Targets 캠페인으로, 본 캠페인은 세계 금융 기관들이 1.5°C의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세계적으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지원합니다.

근거 없는 넷-제로 공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 기반 목표들은 순 제로 미래를 향한 중간 목표를 통해 2030년 더 가까운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기업들은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 회의에 앞서 기후 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제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기 위해, 전 세계 570개 기업이 이미 참여한 1.5°C를 목표로 향한 SBTi의 비즈니스 앰비션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식 보고서 'Taking the Temperature: Assessing and Scaling-up Climate Ambition in the G7 Business Sector' 은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한국임업진흥원



UNGC 가입: 17. 11. 10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산림소득증대와 산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2012년 개원한 산림청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진흥원은 '지속가능한 임업을 선도하여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임업서비스 전문기관'이 되기 위하여 '산림 소득증대 및 임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미션 하에 '임가 경쟁력 강화', '임산업 성장동력 확대', '산림의 효율적 활용 체계 구축'의 3가지 전략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업인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청정임산물 생산·마케팅지원, 산촌마을 육성사업 및 '임산업 성장동력 확대'를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목재 품질 안전 관리, 중소 목재기업 성장 지원, 산림 과학기술 실용화 촉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의 효율적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림 병해충 방제, 산림인증, 산림탄소상쇄, 산림정보구축·활용 등 임업·임산업의 사회적·환경적·경제적가치를 창출·확산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임업·임산업 분야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진흥원은 기존 임직원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코로나 19 비상대응단'에 '산업지원반'을 신설하여 임업·임산업 분야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체계 및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임산업분야에서는 특히 산나물을 재배·판매하는 임업인들의 피해가 가장 심했습니다. 산나물은 재배 특성상 4~5월에 대량 출하되는 품목으로 매년 전국에서 다양한 산나물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하여 전국의

산나물 축제가 대부분 취소되어 임업인들의 판로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서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접촉을 최소화하는 ‘산나물 드라이브스루 마켓’을 기획하였습니다. 먼저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가능한 약 2ton의 제철 임산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임업인들에게 물류비 및 포장을 지원하여 시중가보다 최대 30% 할인된 착한 가격으로 신선하고 우수한 제철 임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중 봄철에만 맛볼 수 있는 제철 임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임가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행사 첫날부터 많은 지역주민들이 찾아주었습니다. 이에 진흥원에서 준비한 산나물꾸러미 3,000개를 비롯한 산나물 단품 1,600개 모두 3일 연속 조기완판 되었으며, 임업인들에게는 판로개척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신선한 제철 임산물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여 코로나 19에 지친 임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임산물 판로 촉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임업인·귀산촌 교육도 모두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진흥원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가 단절된 임업인들에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밴드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하여 비대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누워서 임업속으로’를 기획하였습니다.

‘누워서 임업속으로’는 코로나 19로 변동된 정책 소개부터 임업멘토 특강, 귀산촌 준비 방법, 산양삼 재배방법 등 총 24개의 콘텐츠를 매주 온라인으로 임업인들에게 제공하여 임가 재배 및 귀산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자발적 학습기회와 귀산촌 준비의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임산물 재배기술은 유튜브를 통한 재배기술 교육영상 자료 46개를 제공하였으며, 영상이 없는 품목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받아 재배기술 매뉴얼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코로나 19 대응기간 동안 총 200건 이상의 매뉴얼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들의 각종 문의 사항은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 등 비대면 접촉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교육희망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 결과 3월부터 진행된 ‘누워서 임업속으로’는 임업인 및 귀산촌 교육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아 현재까지 콘텐츠 구독자 수가 약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산촌마을의 코로나 19 확산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에 진흥원은 산촌생태마을, 산림형사회적기업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산촌마을의 코로나 19 확산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산촌마을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코로나 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월 24일 진흥원에서는 임직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고객지원센터에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와 방역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여 진흥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 대한 방역도 실시하였습니다.

2월 24일과 25일, 연속적으로 진흥원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관장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하고자 개원 이래 최초로 비상경영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사적인 코로나 19 대응을 위하여 기관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임업진흥원 코로나 19 비상대응단’을 구성하였으며, 상황대책반, 안전관리반, 안전교육반, 현장대응반으로 나누어 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상황대책반은 국내 코로나 19 현황 및 정부·질병관리본부 브리핑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화하는 정부대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전 직원 출장 및 회의 자제, 위험지역 방문자 자가격리 실시 등 강도 높은 방역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전관리반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1일 3회 접촉 시설 및 주 1회 진흥원 시설물 전체 방역, 열화상카메라, 손소독제, 세척제 등을 비치하여 근무지 내에서 24시간 방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부 회의 대신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추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안전교육반은 정부방침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을 작성·배포하였으며, ‘재택근무 운영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효율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대응반은 각 부서의 부서장을 중심으로 부서원들의 발열체크, 위험지역 출장 및 방문관리, 재택근무 복무관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체계적인 대응 노력 덕분에 현재까지 진흥원 내의 코로나 19 확진 환자는 0명이었으며, 앞으로 코로나 19 상황변화에 따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여 임직원 안전관리를 위한 내부대응을 지속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흥원의 인도네시아 및 파라과이 해외법인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지 정부지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매일 2회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직원 보호를 위한 국내·외 코로나 19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진흥원은 정부방침을 예의주시하며 생활방역을 꾸준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 임산물 프로모션 행사 및 가을 임산물 대축제 등을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상 대책을 알려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임업·임산업 전 분야의 고객·임업인과 소통 간담회, 동반성장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임업인, 귀산촌 3월 교육은 안타깝게 취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월 알림🔔

<p>10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0 귀산촌 교육 소개 2. 임업멘토가 알려주는 산양삼 	<p>17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홍보교육관 영상 2. 귀산촌 준비는 어떻게? 3. 임업멘토가 알려주는 산양삼
<p>24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배기술 영상(영주센터) 2. 귀산촌 지원정책 소개 3. 임업멘토가 알려주는 산나물 	<p>31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배기술 영상(부여센터) 2. 귀산촌! 성공해볼까? 3. 임업멘토가 알려주는 표고

댓글을 달아 보세요.
 전송

2. [SDGs 솔루션] 팜유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



[SDGs 솔루션] 팜유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

Biteback은 동남아시아에서 대규모 삼림 벌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팜유에 대한 대안이며, 영양이 풍부하고 환경 친화적입니다. 이 대안은 바로 곤충유입니다.

Biteback은 식용 곤충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곤충을 기르기 위하여 아주 약간의 사료, 물, 땅이 필요하며,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팜유에 비해 훨씬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같은 면적을 기준으로 곤충유는 팜유보다 38배 가까이 더 많은 기름을 생산하였습니다. 곤충유는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건강합니다. 또한 기름이 공업용 식품에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건강 상의 이점도 있습니다. 곤충유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산은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낮으며, 살충제나 비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사람과 지구에 유익합니다.

이 솔루션은 2018 Global Opportunity 보고서의 대안 식재료 시장 카테고리에 소개되었으며, 보고서의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기아의 종식



곤충유는 철분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곤충유 섭취를 통해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고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팜유는 가공품 50%에서 사용됩니다. 곤충유로 전환하는 것은 천연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기름을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육상 생태계 보호



1 헥타르의 땅에서 연간 4 톤의 팜유나 150 톤의 곤충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곤충유를 선택한다면 삼림 벌채와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 뉴스

1. 코스맥스, ESG 경영 박차...UNGC 가입



-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UNGC에 가입한 코스맥스는 이번 가입을 계기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분야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 전략에 내재화하고자 함
- 코스맥스는 2025년까지 30%의 온실가스 감축을 바탕으로, CDP A 등급 획득을 목표로 하고있음
- '제로 플라스틱 캠페인', '시니어와 장애인 고용확대' 등의 노동환경 개선을 이룬 코스맥스는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평가하는 글로벌 인증 SMETA(Sedex Members Ethical Trade Audit)을 취득 함
- 심상배 코스맥스 대표이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함

이데일리

2. 신한은행,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펴내… “국내은행 최초”



출처: 신한은행

- 신한은행,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하기 위해 국내 은행 가운데 첫번째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펴냄
- 적도원칙, 대규모 계획사업으로 생길 수 있는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 사회 리스크를 식별,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지난달 기준 37 개국 118 개 금융기관이 채택한 바 있음
- 신한은행 관계자, “적도원칙 시중은행 첫 가입은행으로, 아직 가입기간은 1 년이 안 됐지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올 1 분기 말까지 검토대상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했다”고 말함

조선비즈

3. ESG 핵심 수소사업 확대 속도내는 SK㈜



- SK 그룹, 세계 첫 청록수소 생산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며 친환경 수소사업에 속도를 냄
- 그룹 내 투자전문 지주사인 SK㈜는 세계 최초로 청록수소 대량 생산에 성공한 미국 모놀리스에 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함
- 청록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 블루수소, 그린수소와 함께 친환경 청정 수소로 분류됨
- SK㈜는 지난해 말, 그룹 차원의 수소사업 전담 조직 '수소사업추진단'을 신설하는 한편, 관계사 역량 결집을 통해 2025년까지 수소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글로벌 1위 수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SK는 이번 투자를 통해 수소 사업 가치사슬에 청록수소 포트폴리오를 추가함으로써 청정 수소 리더십을 확보하고 글로벌 수소 생태계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

세계일보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 회원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1 곳입니다.

- 포스코건설

2. COP/COE 제출회원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케이에이치메디칼
- NS쇼핑
- 여수광양항만공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1-2 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한국동서발전, 한전 KPS,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CJ 대한통운

<1-2 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유니베라, 슬로워크, 이알엠코리아, 길바이오,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환경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국제협력단,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9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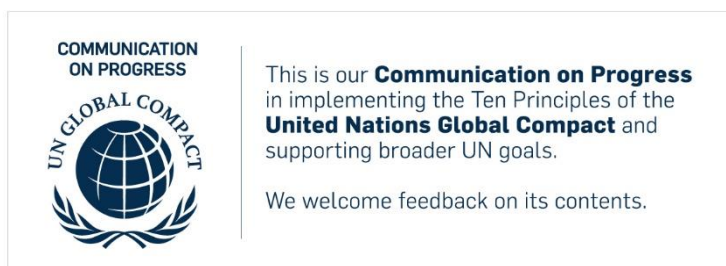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가 active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박희원 연구원